

# 우리 구속주의 자비: 예수께서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시다

누가복음 5:17-26

2022년 5월 8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New City Catechism에서 오늘의 질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의 게시판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 19문: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단순한 자비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구속주에 의해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 구속주 예수의 자비를 탐구하기 위해 저는 육체적, 영적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 누가복음 5:17~26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앉았더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  
유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강력했습니다.

18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돛자리에 메고 와서 그들은 그를 안으로 예수께 데려가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몇 개 떼어  
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병자를 돛자리에 눕히고 예수님 바로 앞 군중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젊은이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도다  
22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묻느냐  
23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24 그러므로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 모든 사람이 보는 즉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26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노  
라!” 하고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  
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1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앉았더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  
유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강력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의 전문가들은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의 치유와 가르침에 관한 보고를 조사하기 위  
해 파견되었습니다. 일부 구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85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옷을 입고 이 회의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이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창문을 통해보고 들어야합니다.

18-19절.

“18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돛자리에 메고 와서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여

19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몇 개 떼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침상 위에 눕혀 군중 속으로 엮드려 예수 바로 앞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의 장애 때문에, 이 마비된 남자는 이전에 이와 같은 장애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걸을 수는 없지만 이웃의 편견도 견뎌냈다. 유대 사회의 특정 직책에서 그를 배제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충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군중을보고 그만 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미안 친구. 만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밥 먹고 기다리자.”

친구들은 장애물을 멈춰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충만한 결단력과 희망에 찬 확신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붕을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집 안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붕 위로 사람들이 땅을 파고, 두드리고, 예수님과 군중 위의 기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집에서 하려고 하는 가르침에 큰 방해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예수 앞 무리 가운데로 내려가니”라고 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이 혼란을 멈추고 싶어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봐, 마스터가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안 보여!” 아,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비가 충만하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담대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상한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십니까? 그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서짐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필요가 우리의 단정하고 깔끔한 삶을 침해할 때 방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마트 위의 절름발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보는 것.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젊은이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종종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보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까? 장애물과 반대를 극복할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지옥에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영적인 대화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웃이나 가족, 친구들과 영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바빠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목사가 자기 교회의 전도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달력에 중요한 것을 어떻게 놓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목사와 그의 아내는 달력에 불신자들을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과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중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나에게 먼저, 다음으로 이웃에게. 먼저 당신에게, 그 다음에는 친구, 삼촌, 동료에게. 복음은 방송하기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17절은 “주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힘이 거기에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그것은 헌신적인 친구들이 그 침대를 지붕 위로 나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가족을 지붕을 찢을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외부 장애물 또는 내부 투쟁?

이 일을 진행하려면 옥상에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함, 우리 자신의 의제, 우리 자신의 평판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 우리는 그분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고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여기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과 One Voice Fellowship으로 인도하는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육신과 영혼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젊은이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다야 남자가 실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치료하지 않을 거라면 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을까요? 나는 고백하러 온 것이 아니다. 걷고 싶어!”

우리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때때로 문제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집세를 내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치료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를 보셨을 때 그는 몸이 마비되고 고쳐야 할 질병 이상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을 보십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 수치, 고립, 거절을 보셨습니다.

이 마비된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미래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걷는 것 이상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 분노, 절망에 대해 용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의료 문제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만 인용하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 회복과 구속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 동일한 종류의 완전한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21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질문이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요 가짜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답이십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마비된 사람은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걸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현대 의학은 무릎 교체와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암과 심장병 치료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않고 나사로의 몸을 일으키고 중풍병자의 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치유로 그들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4절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를 하십니다. 그는 이 사람의 육신을 구원하여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시느니라.

Barrett Jones는 내 친구입니다. 그는 말라위의 매우 가난한 지역에 있는 HIV-AIDS 의료 클리닉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입니다. 몇 년 전 Dr. Jones는 지역 목사를 영적 사역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목사의 일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일부 재정 기부자들은 Barrett이 한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목사에게 지불하는 돈으로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의 종교 생활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존스 박사는 이 세상이 인간의 필요와 고통으로 가득 찬 유일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수직적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해 깨졌고, 그로 인해 수평적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적, 감정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단절의 징후입니다.

One Voice Fellowship에서 우리는 수평적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주는 자비로운 사역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선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다는 것을 맛보고 알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사역과 영적인 사역을 모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공허이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보다시피, 이 중풍병자는 그의 친구들, 그의 부러진 몸을 짊어진 충실한 친구들에 의해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들은 십자가에 달려 상한 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친구를 버리고 그를 무력하고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야, 그들의 죄가 네 머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기적 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걸어. 집으로 돌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 친구들을 속부터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 그분을 짓밟고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듣게 될 최고의 소식!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병을 자신의 몸에 흡수시키심으로써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불구가 되셨고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후에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신 자신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푸신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할 능력과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믿으세요. 희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당신의 치료자, 구속자, 구주,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우리의 시간을 마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마도 중풍병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적인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이 친숙한 단어를 불렀을 것입니다.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모든 속사람이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 3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4 네 생명을 구덩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젊음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가족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기회와 담대함을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행동으로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아멘.